

032722 주일설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Luke) 15:11-32

어느 등산객이 시골의 한적한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길 옆 조그마한 쪽문에 “다불유시(多不有時)-많을 다, 아니 불, 있을 유, 때 시” 라는 한자어가 적혀 있었어요. 등산객은 그 말뜻이 알쏭달쏭했습니다. ‘시간은 있는데 많지가 않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구였어요. 그는 옆에 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주인이 혹시 계신지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느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니 통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뭔 일이에요?**” 등산객이 정중하게 물었어요. “저 한자성어는 누구 작품인가요. 그리고 무슨 뜻인가요.” “**그건 내가 쓴 거요.**” “**잘 쓰셨던데요. 그럼 뜻을 좀 가르쳐 주실래요?**” “**뜻은 뭘 뜻? 그냥 다불유시(WC)야. 따불유씨, 화장실도 몰라?**”

우리는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일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탕자의 비유예요.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비유 중에서 탕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아버지께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에게 2/3, 그리고 차남에게 1/3이 물려지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물려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작은 아들은 그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 재산을 들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금세 탕진해버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방탕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둘째 아들도 물론 그렇지만 첫째 아들 또한 정말 탕자로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아직 철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방탕한 자식이 되었지만,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에 있었던 줄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가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육신적으로 아버지와 한 집에 같이 살았으면서도 마음은 아버지와 너무도 먼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구요, 처량한 신세에 빠진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밤에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라도 지내는 것이 이보단 낫겠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해 어려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이 가까워지자 자신의 어리석음에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때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저 멀리 보이자 얼른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우연히 동구밖에 나갔다가 작은 아들을 보았겠습니까? 평소에 호적 파버린 아들로 여겼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평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 기다라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깨끗이 목욕을 시키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었어요. 맨발 상처를 치료해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저희들도 잃었다가 다시 찾을 때의 기쁨을 알고 있어요. 평생 건강할 줄 알고 몸을 돌보지 않았다가 막상 건강을 잃고 다시 찾는 경우라든지, 열심히 돈돈돈 하고 살다가 가정을 잃고 평화를 잃는 경우도 있구요. 명예, 또 사람들 간에 많은 관계보다 권력을 쫓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는 어떻구요? 나아가서 세상에서 바쁘게 사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ㅎ ㅎ.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일이 이뤄지기만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 계획에 비하면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순간들도 있어요! 해서 성경 말씀은 알지만 무시하고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사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발 동동 구르며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음성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가 마음 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첫째 아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삶에서 돌아왔고, 이제 첫째 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방탕한 삶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 vs.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비하면 첫째 아들은 얼마나 괜찮고 듬직합니까? 자,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하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화를 냈습니다.

밖에 나와 자신을 달래는 아버지를 향하여 첫째 아들은 자신의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는 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언제 염소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즐기게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창기에게 다 탕진한 저 놈에게는/당신의 아들에게는 (내 동생이라는 표현은 없지요) 살찐 송아지가 왜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대들었습니다. (*

달리 표현하면, 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세요?)

자신은 아버지께 늘 순종하며 정말 효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매일같이 동구밖에 나가셔서, 집 나간 둘째 녀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이 진작 알았더라면..., 집나간 동생을 찾아보기라도 했겠지요. 자신 마저도 아버지를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수소문이라도 해보았겠지요. 아니면, 최소한 동생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동안 애태웠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물론 그의 동생이 한심하고 패심한 부분은 있었겠지만 반감게 맞아 주었겠지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늘 노심조사하며 기다렸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속에는 돌아온 탕자도 있지만 아직도 돌아와야 할 탕자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을 쪽 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도 처음에는 돌아온 탕자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큰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작은 아들들에 비해,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일 수 있어요. 난 이정도면 참 잘하고 있다고, 말도 잘듣고, 교회도 잘 오고, 심일조 생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효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선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인들을 멸시하고 부정하는 자칭 의인들에 엄청난 충격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의 존재를 멸시하며 부정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남을 차별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구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남에게 다가감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멸시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멸시하고 부정하느냐고 통렬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날마다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면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의 기준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변화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하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쁨... 어쩌면, 누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한심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남이 열심히 신앙 생활하려고 할 때, 너무 튼다고 말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함께 뛰는 겁니다. 남이 잘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남이 안될 때 고소하게 여기지 않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일하려고 하면 뒤에서 응원하고 잘하라고 격려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서툴고, 신앙적으로 쉽게 흔들리기 쉬운 초신자들을 너그러니 인내함으로 돌봐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인격과 죄를 구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죄를 분리해 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와 인격을 긍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게 필요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 즉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 한 사람을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과 같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심정에 다시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들이 홀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 또한 우리가 홀롱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사람의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아들의 관점에서선 아버지의 사랑이 지나치고 낭비이다 싶을 만큼 아버지는 둘째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또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지 아직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